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성장기¹⁾

서 정 수²⁾
협회 부회장

2009년도는 협회가 창립 된지도 어연 반 세기에 가까운 47년의 세월을 맞았다.

필자는 30여 년간 협회에 재직한터에 그동안 협회에서 수행되었던 각종 사업에 얽힌 이야기들을 술회해 보고자 한다. 설립 초창기의 이야기들은 다른 필자의 언급이 있으리라 사료되어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7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에 협회의 성장기로 보고 당시에 일어났던 중요한 몇가지 일들에 국한하였다.

자연보호운동의 유일한 단체

오늘까지도 자연보호, 자연보존, 자연보전이라는 단어가 나올라치면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지나온 역사와 역량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협회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다.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시금석을 이룬 1960년대 협회의 탄생은 한국의 환경사를 대신할 만큼 자연보호운동 역사에 있어 독보적 존재로 군림한 시절이었다.

현재는 자칭 환경단체라고 말하는 곳이 수십 개에서 수백에 이를 정도로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당시에는 유일 무이한 자연보호 단체였으며 그 존재는

국내외에도 알려질 만큼 유명세를 누렸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자연보호운동과 함께 협회의 기능과 사회적 기여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였고, 사실상 자연보호운동과 관련된 정부 주도하의 계획과 기획안은 모두 협회의 몫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 중 새마을운동에 이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자연보호운동은 당시 국민소득과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짐이 없는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잣대로 평가해볼 때, 과연 국민운동으로서의 질적, 양적 만족도는 충족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시의 국내외적인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운동으로 평가 받을 정도였다.

70년대 당시 인접한 일본과의 경제적, 과학적 기술 수준 차이를 50년 정도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자연보호운동은 일본 등과 비록 양적 수준에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질적 수준에서는 거의 동등한 위치를 유지할 만큼 급 성장적인 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결성된 협회의 구성원과 기능, 그동안의 성과 등으로 미루어

1)The Growth Period of KACN

2)SUH, Jung-Soo, Vice President, KACN

보아 가능한 일이었다고 확신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문학자로 구성된 민간단체인 까닭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국내 뉴스에는 협회가 등장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협회를 출입하는 전문기자단도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의 사무국에서는 기자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답과 인터뷰 요청에 바쁠 정도였으니 말이다.

자연과학 특히, 생물계통의 학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할 것이다.

범 국민운동의 단초 제공

이런저런 상황을 가능케 한 것은 협회를 최초로 조직한 학자들의 노력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다른 필자가 기술하시겠지만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국민적 관심사이며, 우리 삶과 직접 연관된 환경운동의 태생은 더 늦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당시에는 “환경”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였던 시절이고 보면 그 분들의 선경지명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분명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다.

거기에 더한 것은 정부의 지원책과 의지였다.

몇 번의 소관부처 변동이 있었던 후, 1977년 10월 5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에서는 자연보호 대상별(지역, 직장, 직능단체별, 공원, 유원지, 산, 강, 댐 등)로 자연보호회를 구성하고,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도, 시, 군, 구청장 단위의 자연보호협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대통령비서실 자연보호회가 발족되었고, 25일에는 국무총리실 자연보호회의의 발족이 뒤따랐다.

민간 주도로 국민운동의 효율성을 위해 자

연보호중앙협회가 10월 28일 창립하여 운동 중심의 업무를 맡았고, 이때부터 협회는 학술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으며 민간단체는 이원화 체제의 출범을 맞게 된다.

1978년 2월에는 자연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내무부에 자연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그의 업무기구로서 자연보호과를 발족시킴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은 비로서 행정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듬해 10월 5일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자연보호 현장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이렇듯 일사분란하게 자연보호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협회의 학자들이 단초를 제공하였던 역사적 배경을 지니게 된다.

당시 내무부의 조직화된 행정력은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협회의 사업에 적잖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자연보호운동이 학문적 이론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고려되어 진행된 시기였다.

이후 본 운동도 불안정한 정치적 시기와 겹쳐 한때는 침체된 국면을 맞기도 하였지만 협회는 나름대로 학술적 연구사업 등에 전념하여 왔다.

자연자원 발굴사업 추진

한국자연 및 자연자원보전학술조사위원회로 창립된 이후, 자연자원종합학술조사는 가장 비중있게 추진된 사업이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협회 설립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것 중 하나로 전국토의 자연과 자연자원의 분포 및 자생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매년 1개소 이상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대상지역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희귀 및 위기동·식물의 서식실

태를 파악하고 이용가치가 높은 자연자원을 발굴하며, 지역생태계의 보전현황 및 보존대책을 제시하는 등 자연자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한 자연보호운동 15년 전에 이미 20여개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었고, 특히 1966년부터 1967년에는 미국의 스미소니안연구소와 함께 비무장지대지대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를 최초로 수행한 업적이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연생태계 연구·조사는 당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오늘날 본 지역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되었다.

이후 내륙의 국립공원지역은 물론 해양의 도서에 이르기까지 수 없는 학술적 연구결과와 함께 보존방향을 제시한 결과로 학계는 물론 행정적 보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전국조사의 모든 기초 문헌자료로 이용될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생태학 관련 학술적 자료의 기본서로 인정받고 있다.

조사지역은 주로 인간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오지가 대부분이고 지금처럼 도로 등 기본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곳들이다.

비무장지대 조사시에는 조사차량의 전복사

고로 수명이 부상을 당하여 후송된 사례로 있었고, 조사에 몰두하여 미확인 지뢰구역을 들어가 소동을 빚은 일이며, 해안도서지방 조사시에는 행정선이 항로를 이탈하여 전복될 위기며, 독도 해양조사시에는 급한 조류에 조사원이 떠내려가는 등 험난한 사태를 이겨내며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전쟁터는 아니었지만 생사고락을 같이한 당시의 조교선생들이 전교조(전국조교연합회)를 결성하여 지금도 맥을 이어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흐뭇하다.

각종 학술연구활동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고도산업화의 정책전개와 부단히 증가하던 인구문제 등은 자연의 개편을 필연케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연자원이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사태로 발전 되었다.

따라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시급히 보호하여야 할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들 자원의 보존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학술적 기초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연구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연구 되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이러한 연구사업중 1980년에 실시하였던 “한국산 반딧불이의 실태조사” 연구 결과는 1982년 11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를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1983년도에 수행한 “충청남도 전체 지역의 녹지자연도 사정”결과는 1986년 환경청에서 실시한 제1차 자연생태계전국조사의 한 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이의 결과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상의 기본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1994년도 실시한 “도입종 황소개구리의 국



해안도서지방 종합학술조사단

내 정착과 분포”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외래종에 대한 최초 연구로 이후 환경부에서 정한 위해 외래 동식물종 선정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1997년도에 실시한 “제주도 숲섬 파초일엽의 보존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는 어떤 지역에 자생하던 종의 복원시, 원종에 대한 사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운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다.

1998년도에 실시한 “제주도 물영아리늪의 조사연구” 결과는 본 지역을 내륙습지로 지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성과로 이어진다.

수 많은 지역과 과제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보존,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물론 후차적 연구과제의 제공 등으로 이어지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사업을 위해 매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과정을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너무나 적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관계로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실적과 성과로 볼 때 본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현실이 어려운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의 Red Data Book 발간

자연 상태에서 생물종의 절멸위기 정도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법적보호를 위하여 대상종의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기준의 개념과 요건은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야생동식물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만 전체 야생동식물의 절멸위기 정도와 보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1981년 당시 국내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만 있어 일부종을 제외

하고는 법적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던 시기였다. 우리의 자연자원인 동식물들은 소리없이 훼손되고 멸종되어 가고 있던 시기였다.

1981년 협회에서는 각 분류군의 학자들이 모여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범주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분류하여 “한국의 위기 및 희귀동식물도감”, 일명 한국의 Red Data Book(적색목록)을 최초로 발간하게 된다.

또한 1987년 6월부터 1989년 6월까지 2여년에 걸쳐 한국내 희귀 및 위기에 처한 동식물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보고함은 물론, 동년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범주를 새로이 설정하여 적용시킨 “한국의 위기 및 희귀동식물도감”을 발간한다.

이후 1994년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이 발효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정야생동식물 126종을 지정, 고시하게 된다.

위 법에서 정한 특정야생동식물 목록은 협회에서 이미 연구한 한국의 위기 및 희귀동식물 목록을 기반으로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협회에 소속된 학자들의 노력으로 국제적으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Red Data Book에도 한국의 목록들이 수록되는 성과를 이루어 놓았고, 국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종들의 보전을 위해 초석을 다진 셈이다.

국내의 희귀동식물상 연구가 시작된 지 5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나라의 야생동식물 서식, 분포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니 당시의 연구자료들의 중요성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의식전환을 위한 강연회

자연보호라는 명제가 전 지구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였다. 따라서 관련학자는



각종 세미나 개최. 단상에 계신 분(이호상 박사)
중앙에 앉으신 분(이덕봉 박사)



세계환경의 날 기념 강연회(강영선 박사)

물론 관련공무원, 경제인,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연보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제로 하여 교육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전국단위로 일년에 한 개 시도를 정하여 순회 강연회 및 세미나를 정기화 하였고, 부정기적인 기념 강연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함은 물론 전국의 자연학습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하였다.

당시 협회에 관련된 학자들은 학교의 강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 사업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1981년 7월에는 “한·일 자연보호관계 교수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일본측 대표로 내한한 沼田 眞 교수는 자연생태학 부분의 세계적 석학이기도 하였다.



1981년 한일 자연보호 관계 교수간담회 서 계신 분
(이덕봉 박사)

이처럼 자연생태계 관련 부분의 학문적 국제교류도 원만하게 유지 하였으며, 당시 일본자연보호협회와는 상호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는 협의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기본 목표였던 전국민적 의식전환을 통한 결과로 이어졌고 지금의 핵심적 운동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교육활동에 전념

지금은 여러 단체, 기관, 심지어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생태체험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80년대만 하여도 이러한 교육사업은 학교나 대상학생들의 참여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상황이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관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쉽게 자연을 접하고 자연보호사상을 심어 주고자 자연관찰이 비교적 쉬운 조류를 대상으로 1986년 7월에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의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209호)에서 어린이 150명을 대상으로 첫 탐조회를 실시 하였다.

당시 이 사업은 메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일년에 한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어린이 탐조회 장면

특히 어린이 전문지였던 소년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는 오랫동안 공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보다 심층적 교육을 위해 오지탐험행사나 특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조경동에서 실시한 오지탐험행사는 그야말로 오지였다.

차량 접근이 어렵고, 전기가 없으며, 통화도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행사진행은 참가자 모두의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강사들 모두가 자체적으로 숙식을 도우며 진행하였던 일들은 지금도 당시에 참가하였던 학부모들로부터 찬사를 듣는 일이 되고 있다.

여기에 참여했던 젊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그 참여도는 높아질 수 있었고 지금은 질적인 면에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하고 있어 뿌듯하다.

그러나 지금도 상시 교육할 수 있는 전용 교육장을 갖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다.

훼손된 자연자원 복원사업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인간의 무분별한

채취와 포획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귀중한 자연자원은 멸종 되거나 훼손되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더 많은 종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연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협회는 우리의 소중한 유전자원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존과 복원에 힘쓰게 된다.

이를 위해 1978년 제주도 서귀포읍 천제연폭포에 나도풍란, 풍란, 파초일엽 등을 이식하는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이들종의 증식을 위해 필수 장비인 무균배양기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어렵게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일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종들에 대한 증식이 가능하여 졌으며 그의 소산물로 여러 지역에 증복원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미선나무, 우리나라 특산종이며 전 세계적으로 일속일종 밖에 없는 본종의 증식을 위하여 1981년부터 2여 년간에 걸쳐 증식하여 천여그루의 묘목을 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자연보호 시범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다.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선나무를 교정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의 성과는 현재 국가사



미선나무 증식분기증 장면(이덕봉박사)

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복원 사업의 시조인 셈이다.

당시 본 사업에 참여한 학자들의 노력과 열정은 30여년을 앞서 생각한 선구자적 현자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서울시내의 한 중학교 교정에는 당시에 심겨졌던 미션나무의 꽃을 매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국제협력 활동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총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을 파견하였다. 1966년 스위스 루선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부터 매회 대표를 파견하였고, 이중 중보전위원회에 우리나라 조류분야를 대표하는 원병오박사가 최초로 참여한 후 최근에는 여러명의 학자가 참여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한국을 전 세계의 참여국에 알리는 일은 물론 학술적 교류에서도 국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세계자연자원보전 전략회의, 국제조류보호회의, 국제생태학회 등에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결과 등은 곧바로 검토되어 협회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에는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었으나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개인 경비 지출 등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결실이었다.

자연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정책, 법률, 연구의 방향 등을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회의장의 풍경은 각국의 자연보호 관련 홍보물이 쌓여있을 정도였으나 당시 한국을 알리는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참가자들은 자비를 들여 작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일도 있었다.

필자도 참가하였던 1996년 캐나다 몬트리올 회의부터 4년 주기로 정기 총회가 이루어지며 회의 명칭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World Conservation Congress)로 바뀌어 개최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해 흔히 ‘환경올림픽’으로도 불린다. WCC에서 다루는 의제와 규모만 봐도 이 대회가 국제환경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총회에는 180개국, 1200여개 단체, 1만여명이 참가한다.

이제는 이 국제적 행사를 한국에서 유치하여 2012년 제주에서 개최한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2년에는 협회가 반세기를 맞는 해이기도 해, 그 준비과정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의 자연을 알릴 수 있는 영문판의 책자라도 발간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

자연학습원 조성 시도

80년도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산 28의 1, 314,000평에 달하는 면적에 청소년들의 자연보호 교육을 위해 자연학습원조성을 전제로 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문 학자들이 분야별로 업무



국제회의의 참석 (IUCN 총회)

를 분담하고, 당시 일본의 경우를 시찰하기 위하여 조사단도 파견하였다.

협회는 자연학습원 조성 기본계획서를 완성하였고, 당시 내무부는 전국 8개시도에 자연 학습원 설치추진지침을 시달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 마련에 들떠 있었다.

기본계획서에는 학습원 운영, 시설물 설치 등은 물론 운용할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민관광운용기금에서 80억원을 지원하라며 결재를 하였으나 소관부처가 다른 예산의 전용이 문제되어 이루지 못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비록 중앙에 자연학습원 조성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협회에서 연구된 기본계획서에 준용하여 82년 7월에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 계곡에 충북자연학습원이 최초로 개원되었고 이후 현재의 전국자연학습원들이 소규모로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로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지만 만약 그때 우리나라 수도권에 자연학습원이 개설 되었다면 자연보호와 관련된 사업들이 한 단계 높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여운이 남는다.

기금 모으기 바자회 개최

협회가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자금이었다.

최초의 기금이 있었지만 금융기관에 정기예탁되어 있었고 현재도 그렇지만 이자 수입만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현재의 소공동 롯데쇼핑센터에서 매년 10월 자연보호헌장선포일을 기증하여 약 5일간 “자연보존사업 기금모으기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자연보존사업을 위한 바자회.
좌로부터(홍순우 박사, 이덕봉 박사, 서종화장관, 유병연사장)

한 독지가의 제안으로 그가 속한 회사의 수 백명의 전 직원이 일여 년에 걸쳐 자체 제작한 각종 공제품을 상품으로 마련한 행사였다.

방송사의 후원으로 널리 알려진 탓에 국민적 관심도 비교적 높은 행사였다.

행사 후 조성된 기금은 2천 수 백여만원에 불과 하지만 당시로는 큰 액수였으며 지금도 그 자금은 기금에 보태져 운용되고 있다.

한때는 수익률이 높아 협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는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당시와 같은 행사의 재현으로 협회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길은 없는지 아쉬움이 크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세월이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에만 언급하였다.

협회의 설립부터 현재의 존립까지는 분명 확실한 명분이 있다.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연구와 이에 관한 지식의 보급으로 국민의 생존과 국가번영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이라는 설립목표처럼 말이다.

이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온 선구자적 학자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

각된다.

혹자들은 협회가 너무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에 큰 발전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허나 필자는 쉽게 동의하고 싶지 않다.

어느 것 하나 풍요로움이 있었던 시절은 없었고, 오직 하나 학자적 양심에 따라 순수하게 치신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직과 활동에 새로운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루어낸 역량의 힘만으로도 내공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세기를 맞이하는 협회의 새로운 역량과시는 꼭 필요하며,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싶다.

더욱이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해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